

■ 광주일보·문화재단 공동 문화나눔 상상강좌 제9탄

“해외 높은 벽 말 없는 공연으로 극복 발상의 전환이 세계적 ‘난타’ 만들어”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 ‘세계의 마음을 두드린 난타’

1997년 ‘난타’를 만들 때 그에게 있던 것은 ‘한국 뮤지컬은 해외에서 안 된다’는 뿌리 깊은 편견과 배우들이 연습때 쓰던 식칼 두 자루, 도마 하나였다. 1999년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난타’를 내보내기 위해 모든 돈을 끌어 모았지만 1억이 부족했고, 그는 고등학교 동창생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야 했다.

1997년 ‘난타’를 만들 때 그에게 있던 것은 ‘한국 뮤지컬은 해외에서 안 된다’는 뿌리 깊은 편견과 배우들이 연습때 쓰던 식칼 두 자루, 도마 하나였다. 1999년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난타’를 내보내기 위해 모든 돈을 끌어 모았지만 1억이 부족했고, 그는 고등학교 동창생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야 했다.

그렇게 탄생한 게 한국의 사물놀이 리듬에서 영감을 얻은 비언어극 ‘난타’였다. 6개월 동안 고물상을 뒤져 소리가 나는 물건을 사들여 직접 두드리면서 최상의 소리를 만들어냈다. 국내 반응도 뜨거웠다. 조용히 무대만 바라보던 그동안의 공연과 달리, 배우와 함께 손뼉을 치고 흥겹게 놀 수 있는 ‘난타’는 색달랐다.

웨이 아시아 관계자들은 해외 무대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할 것과 각국 문화에 맞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에든버러에서 한 달 동안 공연할 때 전화 매진을 기록했고, 이 공연을 통해 디즈니와 일본 등지의 극장과 계약을 맺으면서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내의 공연이 많아 9개의 팀이 ‘난타’ 공연을 하고 있어요.”

41개국, 270여 개 도시에서 상연된 세계적 브랜드 공연 ‘난타’의 제작자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가 밝힌 ‘난타’ 탄생 비화다. 27일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화나눔 상상강좌’가 열린 빛고을시민문화관 안을 가득 채운 300여명의 관람객은 송 대표의 말에 숨 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가 1996년 해외 진출을 목표로 가수 김수철과 ‘고래사냥’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을 때 일이다. 여기서 7억원이라는 제작비를 끌어와 뮤지컬을 만들었지만 해외 무대의 벽은 높기만 했다.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도 생겼다. 송 대표는 공연 하이라이트를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일본, 미국, 영국 등 6개국을 돌며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다. 런던에서 만난 한 공연 관계자는 “분단국 한국에서 연극을 한다는 소린 처음 듣는다”고 문전박대를 했다.

송 대표는 특히 한국이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문화가 해외에 소개되면 덩달아 한국의 국가 브랜드도 높아지고, 이는 수출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융합과 복합의 시대의 중심에 문화가 있어야. 이제는 어떤 산업이라도 문화와 기술을 접목시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광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900만명의 외국 관광객 중 100만명이 국내 공연을 관람했고, 이중 70만명이 ‘난타’를 봤다. 또 지금까지 총 공연 2만회, 총 관객수 700만명을 기록한 ‘난타’의 시작은 의외로 초라했다.

“어느 날 배우라는 직업에 회의가 느껴졌어요. 캐스팅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무대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연극과 뮤지컬 제작을 시작했는데, 쉽게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가 1996년 해외 진출을 목표로 가수 김수철과 ‘고래사냥’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을 때 일이다. 여기서 7억원이라는 제작비를 끌어와 뮤지컬을 만들었지만 해외 무대의 벽은 높기만 했다.

“자본과 언어의 한계 때문이었다. 당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평균 사전제작비만 80억원이었고, 디즈니의 뮤지컬에는 240억원이 투자됐다. 또 영어 자막을 따로 만들면 무대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송 대표가 찾아낸 해법은 ‘발상의 전환’이었다.



‘문화나눔 상상강좌’가 열린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강사로 나온 송승환 대표가 ‘난타’의 제작 과정을 들려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연극·음악·무용... 사랑을 외치다

극단 진달래 피네 31일부터 ‘사랑 프로젝트’ 진행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전용 극장 문예정터를 운영하고 있는 극단 진달래 피네가 ‘사랑’을 테마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다. 정통적인 ‘연극’을 벗어나 미디어 아트·현대무용·노래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콘셉트이다. 본격적인 워크숍에 앞서 오는 31일 오후 7시에는 ‘사랑프로젝트 오픈 콘서트’를 연다. 연극을 제외한 다른 장르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풀어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무용(박경숙·광주여대 교수), 미술(조인호·광주비엔날레 재단 전시부장), 음악(변옥·광신대 교수), 영화(복환호·호남대 교수)속에 그려진 사랑 이야기를 초대 손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된다. 첫번째 워크숍(11월 14일 오후 7시) ‘사랑은 福(복)하다’는 미디어 아트와 가요, 현대 무용이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으로 배우 최현진·김소아씨와 함께 현대무용가 여순심(광주여대 무용학과 교수)씨가 직접 무대에 오른다. 솔라이클립스에서 활동중인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씨도 힘을 보탤다. ‘사랑은 말이다’(11월28일 오후 7시)는 방송·영상·무대 이미지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청춘이 사랑이다’, ‘이별을 먹고 산다’, ‘사랑의 초인종’ 등 6개의 짧은 연극으로 구성돼 있다. 박규상·조현욱·강희원씨 등이 출연한다. ‘춘향의 사랑이, 없다’(12월 10일 오후 7시)는 고전 ‘춘향전’을 비튼 작품으로 최영희씨가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사랑프로젝트 클로징 콘서트’(12월 24일 오후 7시)는 그동안 작품에 출연했던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라이브 방송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문예정터 홈페이지(www.문예정터.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 잊혀진 사랑에 대하여

‘김원중 달거리’ 공연 31일 빛고을문화관

‘뿔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 10월 행사가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문화관에서 열린다. ‘오마주-가을, 잊혀진 사랑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달 초대 시인은 나희덕(조선대 교수·시인)씨다. 나씨는 ‘사라진 손바닥’, ‘어두워진다는 것’ 등의 시집을 썼으며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소설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무대를 아름답게 꾸민 작가는 한



극화가 박태후씨다. 화가 주홍씨, 작곡가 김현옥씨 등 함께 무대를 만들어 온 예술인들도 어

림을 보았다. 입장료는 없으며 모비에 마련된 모금함에 정성을 더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은 피아노 선율을 타고 멜로디가 있어 더 빛나는 시

최유진 독주회 내달 1일 유·스퀘어문화관 김성훈 가곡발표회 28일 문예회관

최유진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김성훈 창작 가곡 발표회가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열정’, 하이든의 ‘소나타 54’, 일본의 현대 작곡가 다케미츠 토후의 ‘비나루 스케치 II’다. 또 광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전곡도 만날 수 있다. ‘프롬나드’, ‘난쟁이’, ‘펠리리 공전의 공인’ 등으로 구성된 ‘전람회의 그림’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클래식 팬들에게 친숙한 곡이다. 전남대와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최씨는 다양한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번 공연에서는 ‘마음의 정원’, ‘건반위의 바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소프라노 김예령·강숙자·박계, 바리톤 김대수, 테너 강동명씨 등이 무대에 선다. 피아노 반주는 박희혁·이상록씨가 맡았으며 플루티스트 양진씨,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연씨 등도 참여했다. 전남대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원에서 수학한 김씨는 현재 연작회 회장, 호신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출플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